

기도와 치유 I

시편 103:1-5

정윤돈 목사님

1. 영과 혼과 육신의 관계와 균형

- (1) 사람에게에는 영과 혼(마음, 생각)과 육신이 있다.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 (2) 영혼이 힘을 얻고, 거기에 따라서 정신과 육신이 강해져야 한다. 영이 약한데 정신력이 너무 강하면, 몸이 아픈데도 정신력 때문에 이기는 것 같다가 결국 무너져 버리게 된다. 정신력은 어느 정도 있어야 하나? 몸이 피곤하면 주무실 정도의 정신력이면 된다. (웃음) 어느 정도의 정신력이어야 하는가? 꼭 일어나야 하는데 못 일어나면 안 된다. 믿음에 따라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부분이 영성이다. 이런 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가장 강해야 하는 것은 영이다. 영이 약한데 육이 강하면 육신에 눌러서, 육신적인 삶을 살게 된다. 그런데 체력이 영력이라는 말도 있다. 전도를 너무 하고 싶은데 체력이 약하면 안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건강관리도 잘 해야 한다. 현장사역을 할 때는 굉장히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체력을 잘 관리해야 한다. 많은 목회자들이 체력을 망치는데, 삶의 리듬이 불규칙적이기 때문이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다. 메시지를 계속 준비해야 하니까 영적으로 긴장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러니까 누리면서 지혜롭게 잘 관리해야 한다. 영적으로 강화를 시켜서, 육신으로 들어오는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을 만큼 충만해져야 한다. 이 건희 회장이 활짝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 돈이 많다고 누리는 것은 아니다. '토요일은 밤이 좋아'라는 노래를 불러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던 김종찬 씨가 가수를 그만두고 전도자가 되었는데, 이분의 간증이다. 돈을 셀 때 웃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너무 돈이 많았는데 행복하지 않았다고 한다. 마음, 영혼을 육신으로 채울 수 없다는 이야기다.
- (3)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 현장에 가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다. 영, 혼, 육이 모두 충만한 사람도 있지만, 영이 좋다고 하는데, 혼의 상태, 마음의 상태가 전혀 충만하지 않은 상태다. 마음이나 인격이 부족한 것이다. 구원은 받았지만 인격 성장이 안 되니까 주변에 문제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 이게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것을 보고 거듭남이라고 한다. 어떤 사람은, 교회는 다니고 육신도 건강한테 성질이 더럽다. 미국에 이런 사람이 많다. 교회는 절대 안 빠진다. 힘이 너무 좋아서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돌아다니는데 그 힘을 가지고 남 욕만 한다. 그러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운운하면서 자기는 충만하다고 한다. 참 곤란한 사람이다. 그런데 몸은 약한데 믿음도 좋고 마음은 여리고 착한 사람도 있다. 이 사람은 위의 사람에게 계속 당한다. (웃음) 어떤 사람은 완전히 육신적인 것이 망해서 마음도 약해졌다. 어떤 사람은 몸이 건강하고 아주 부지런한데 믿음이 없어서 영혼이 죽었고, 인격도 약하다. 이런 사람들이 사고치고 다니고 사기를 치고 산다. 건강하고, 술 담배도 안 하고,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많이 하면서, 착하게 산다. 그런데 예수는 안 믿는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팬찮은 사람이다. 그러나 죽으면 어디 가나? 지옥에 간다. 후대들이 끝까지 잘 되리라는 법이 없다. 이 내용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가장 큰 문제가 온다. 문제라도 있으면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인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으면 어렵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더 주의깊게 보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대상자들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전도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현장에 가야 한다. 어떤 사람은 영이 너무 강하니까 몸이 아무리 아파도 전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영이 약해서 감기만 걸려도 교회 안 나온다. 마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해서 잘 빠지는 사람도 있다. 여러분의 모습 중에서 강화시켜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보고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치유받아야 한다. 어떤 부분이 약할 수 있다. 죽는 날까지 우리가 계속 치유를 받아야 되겠다.

2. 기도와 치유

인간에게는 사람의 기술이나 약물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 더욱 많으며, 병명을 밝히지 못한 채 죽어가거나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많다. 건강하던 사람도 갑자기 불치병과 여러 가지 병에 걸려 평생을 시달리는 사람이 많다. 성경에는 불치병 환자를 치유한 기록이 많이 있다.

- (1) 수리아의 귀신들린 간질병자가 있다. 간질병에 시달리는 사람이 지금도 조금씩 있다.
- (2) 문둥병자가 있다. 소록도에 한 번 가 보아야 한다. 눈까지 썩어서 안 보이지만 성경 66권을 다 암송할 정도다. 손가락이 썩어 없어졌어도 찬양하려고 손바닥을 들어 하모니카 연주를 한다. 육신은 건강해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 비교할 수 없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해지는 균형을 말하는 것이다.
- (3) 소경 바디매오
- (4) 눈멀고 병어리된 자
- (5) 두로, 시돈의 흉악한 귀신들린 자
- (6) 성전의 앓은뱅이
- (7) 38년 된 병자
- (8) 손 마른 자
- (9) 혈루증 여인
- (10) 빌립보의 정신 이상자

이러한 병의 원인은 전부 영적인 병이므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부터 받지 않으면 치유가 불가능하며 잠시 다른 방식으로 치유되었다가도 점점 더 악화되어간다.

3. 성경이 가르치는 치유의 순서

예수님의 치유사역 속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치유의 순서를 찾아보자.

(1) 먼저 치유해야 할 우선순위가 영적 치유다. 구원을 받게 해야 하는 것이다. 무턱대고 영접시키려고 하지 마라. 정말 인격적으로, 복음적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게 해야 한다. 그게 좋은 영접이다. 급하면 겨우 따라하게라도 해야 되겠지만, 진짜 제대로 된 영접이라면, 인생에 대해 제대로 생각하게 해야 한다. 우리가 생각만 약간 다르게 하면 현장을 살릴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현장에서 빛이 되고 행동이 달라져야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봐야 한다. 조금만 달라져도 역사 일어난다. 너무 현장에 흠임이 가득하기 때문에, 조금만 다른 행동을 해도 빛이 되고 길이 된다. 안내자가 된다.

①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고 했다(약5:15-16).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앓은뱅이를 건강하게 하여 바리새인들 앞에 서게 했다(행4:9-10).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치유가 일어난다.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란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면 주변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어 있다.

- ② 예수 영접하면 영적 치료가 되는 것이다. 정말 진정으로 영접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 ③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정신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삶에까지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 ④ 원죄, 우상숭배한 조상의 죄와 본인의 죄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2) 모든 영적, 정신적, 육체적인 병은 마음을 타고 들어온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살전5:16-18이라는 기준이 없으니까 환경 따라서 흔들린다. 우리는 기준, canon을 붙잡아야 한다.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조건이 없다. “항상 기뻐하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 버려라.” 25년 동안 뇌 연구를 한 여자 박사가 강의한 것이 유튜브에 떠 있기에 봤더니, 우리 뇌는 1초에 4억 개의 연산 작용을 한다고 했다. “슈퍼컴퓨터와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우리의 뇌가 우연히 생겼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이다. 우리 머리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실 때 우리 뇌의 뉴런이 활발하게 움직이게 된다. 성경말씀이 증거될 때 뇌가 살아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과학자의 이야기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말씀을 읽을 때 뇌가 다 살아난다고 한다.” 예수 믿으면 지혜로워진다.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뇌에 시커먼 것이 올라온다고 한다. 감사하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그때 마음이 살아난다. 찬양할 때 육과 영과 마음이 치유되고 살아난다. “그가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시103:3), 네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며(시103:4),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시103:5).” 육신, 영혼, 마음을 다 고치신다는 것이다. 영과 육과 마음까지 복음 때문에 치유받고 응답 받게 되기를 축원한다. 우리의 마음이 만족한 상태에까지 가야 한다. 우리는 답을 다 받았다. 성경대로만 하면 된다.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네 마음을 지키라’고 했다(잠4:23).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했다(엡4:27).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고 하지 않았나(요일3:8). 영적으로 무장하라. 전신갑주를 입어라(엡6:11, 19). 영적 상태다. 우리에게는 사단을 결박할 권세가 있다(마12:29). 마귀를 대적하라(약4:7).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서밋이 되어야 한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항상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한다. 늘 말씀을 찾아 듣고 누리다가 만족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란다.